

“깨어 있으라 ... 침묵하면 비극은 또 일어난다”

행복한 책 읽기

박완서 '노란집'
(열림원 펴냄)

가리앉은 자와 구조된 자

프리모 레비 지음·이소영 옮김

1933년부터 1945년까지 독일에서는 유대인, 집시, 장애인, 성적 소수자, 정치적 반대파 등이 대량학살됐다. 흔히 홀로코스트라고 부르는 재앙이다. 유대계 이탈리아 작가 프리모 레비(1919~1987)는 악명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생존자다. 그는 1947년 당시의 경험을 토대로 한 증언 문학의 고전 '이것이 인간인가'를 펴냈다.

20세기 처절한 정치 폭력의 증언자로 살아가는 것을 스스로의 책무로 받아들였던 그가 수용소에서 풀려난지 40년만인 1987년 발표한 '가리앉은 자와 구조된 자'가 번역·출간됐다. 저자는 책 출간 1년 후 토리



노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전작 '이것이 인간인가'가 그랬듯, 책은 생생한 수용소의 삶과 나치에 대한 비판과 문제 제기를 넘어서 '인간 존재'에 대한 다양한 생각거리를 던져준다. 그는 수용소에서 인간 존재의 위기를 보았고, 이후 철저한 자기 성찰과 비판 정신으로 그 질문을 현재의 우리에게 던진다.

책은 서문과 '상처의 기억'을 시작으로 회색시대, 수치, 소통하기, 쓸 데없는 폭력, 아우슈비츠의 지식인 등 8장과 결론으로 구성돼 있다.

저자는 홀로코스트를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당시 수용소의 '고문자'에 집착

하지만 '아우슈비츠는 나와 당신을 포함한 보통 사람들에 의해 운영된다'고 말한다. 그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들 역시 똑같은 사람들, 평균적 인간이었고, 평균적 지능을 지녔고 평균적으로 약한 사람들었다고 설명한다. 물론 그들에게도 책임은 있지만 정신적 타애타 때문에, 근시안적 타산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국민적 자부심 때문에 침묵하고 동조했던 대다수 사람들의 책임을 묻는다.

아프게 다가오는 대목은 2장 '회색시대'다. 출간 당시 논란이 됐던 부분이기도 하다. 수용소에서 처음 받은 위협, 첫 목욕, 첫 구타는 나치 친위대가 아닌, 자신과 똑같은 '출몰니 유니폼'을 입은 동료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는 그는 억압의 체제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그 체제를 담아 가는지

간의 나약함에 대해 이야기한다. 저자는 결론에서 말한다. 사건은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불관용과 권력에 대한 욕망, 경제적 이유, 종교적이거나 정치적인 광신, 인종적 마찰 등이 발생시킬 수 있는 폭력이 난무하는 조류 속에서 미래에 면역성이 있다고 보장할 수 있는 나라는 극히 소수라는 설명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감각을 버리고 있어야한다고 강조한다.

그의 삶과 자작에 오랫동안 관심을 기울여온 서정성은 "실제 경험, 폭넓은 지식과 교양, 안이한 선입견을 배제한 과학자의 고찰,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절제된 사고, 그 바탕에 대한 갈려 있는 '인간성'에 대한 사유 있는 절망과 힘겨운 기대로 가득찬 글"이라고 추천했다. <불베개·1만 3000원>/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한국 문단의 거목이자 모성 문학의 대표주자인 전정여머니 등 우리나라에서 가장 글을 감칠맛나게 쓰는 작가 박완서, 타계 후 그녀의 미발표작을 새롭게 만났다. 이 책은 작가가 2000년대 초반부터 아치를 노란집에서 지내면서 일상을 답답히 그려낸 글이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다.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야 보이는 것들이 소중하고 정겹기만 한다는 말에 공감이 간다. 문제가 어찌나 자연스럽게 답답한 지 읽는 도중에 책을 떨어뜨릴 정도로 압권이다. 이보다 더 감칠맛 나고 맛깔스러운 글이 또 있을까 싶게 사실적이다. 심지어는 추억 속 이(곤충) 잡는 풍경까지도 속속들이 그림게 만들고 있다.

첫 장의 '그들만의 사랑'은 짧은 소설 형식으로 노부부의 일상을 그렸다. 소소하고 진솔한 노년기의 속내를 드러내 수수하게 묘사했다.

삶을 반추해보는 감칠맛 나는 일상

노인의 삶이 자칫 누추해 보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쾌활한 다듬잇방망이의 휘모리장단으로, 때로는 유장하고 슬픈 가락으로 요묘한 풍경 속에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행복하게 사는 법은 무엇일까. 모든 불행의 원인은 인간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 작가의 삶을 반추하자면 남의 좋은 점을 발견해 베풀어준다.

그러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어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한다. 추억 중에 사랑 받았던 기억까지 살맛나게 해주어 성공한 인생이 된다는 것이다.

유년 시절 할아버지의 도포자락에서 추석빔을 선물로 받고 황홀해서 밤새도록 끼고 잤다는 에뮬한 회상이 인상적이다.

작가 자신도 삶을 사랑하기 때문에 글을 쓴다. 감각이 굳어지거나 감수성이 진부해지지 않으려고 꾸준한 노력하는 현역작가였던 삶이 충분히 아름답다. 연륜에서 묻어나는 노년기 삶의 일부분이 또 단숨에 읽혀졌다.

박완서 작가는 1980년대 중반 여성문학의 대표 주자였다. 문체가 날렵해서 이야기마다 생동감이 있고, 자연주의적 통찰력이 탄탄해 읽는 이로 하여금 추후의 망설임도 없이 통쾌함까지 가져다준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필력이 더욱 원숙해지고 위선과 허위의 이중성을 정확하게 짚어냈다.

요즘 추세로 이 책 역시 이철원 화백의 판화가 삽입되어 보는 즐거움까지 더해지고 있다. 삽화마다 고운 색감이 동화처럼 순수하고 따스하다. 글, 그림, 책 삼박자가 아름답게 어우러져 봄의 그트머리에서 딱 추천하고 싶다.

플라톤은 '아름다운 것은 참으로 힘든 것'이라고 했다. '아름답다'의 사전적 의미는 '보거나 듣기에 즐겁고 좋은 느낌을 가지게 할 만하다'고 나와 있다. 봐서 좋고 들어서 즐거우니 읽는 느낌이야말로 좋지 아니한가.

인영옥 1999년 광주일보신문에 동화 당선 <한술수북·8000원>

새로 나온 책

▲신의정원 조선왕릉=조선왕릉에 대해 수 십 년간 연구하고 조선왕릉 세계유산 등재시 많은 활동을 한 이창환 교수가 그동안 축적된 연구내용과 등재 과정에서 얻은 내용을 정리했다. 조선왕릉의 조영적 특성 및 문화유산적 가치, 27대에 걸친 조선의 왕과 왕비에 대한 탄생과 왕실생활, 그들의 정치적 역할 등에 대해 고증을 통해 서술했다. 필자가 직접 현장을 다니며 수 십 년간 작성한 생생한 40기 조선왕릉의 도면이 지면에 공개돼 생동감을 더한다. <한솔·3만원>

▲악탈 문화재는 누구의 것인가=2011년 '조선왕실의례'가 반환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일본인 노학자 아라이 하쿠세키의 진정한 양심을 대변한 책. 전반부에서 일제에 의한 문화재 반출사를 소상하게 기술한 저자는 이어 제2차 세계대전 전후로 연합군이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했는지, 한일국교정상화 회담에서 이 의제가 어떻



게 다뤄졌는지를 살폈다. 2차 대전 이후 국제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화재 반환 운동의 추이, 식민지의 청산의 움직임 등을 두루 소개했다. <태학사·1만5000원>

▲철학자와 하녀=평범한 소시민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꿀 힘을 없다고 느끼는, 무력감에 빠진 마이너리티들에게 '철학'이란 도구를 안겨준다. 현장 인문학자 고병권이 말하는 철학은 '세로움'의 공부다. 자기계발과 위로의 인문학이 체제에 편입하기 위한 공부라면, 철학은 나의 생각을 절거렸던 체제와 이데올로기를 부수는 공부다. 책은 36쪽의 글을 통해 철학이 개인과 사회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나가



할지 제시한다. <메디치·1만5000원>

▲에너지 전쟁 2030=에너지 위기에 처한 인류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청소년 소설. 2012년 가디언 문학상 최우수보에 오르면서 세계적으로 문학성을 인정받은 작품이다. 소설은 과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정체성에 대해 묻기도 하고, 에너지 문제가 사회적 정치적으로 얼마나 큰 파급효과를 낳는지도 알려 주며, 우리에게 닥친 문제에 대해 체감하고 생각할 기회를 준다. <살림프렌즈·1만1000원>

▲맹자와 장자, 희망을 세우고 변신을 꿈꾸다=성정의 세계를 대표하는 두 거장

맹자와 장자는 전국시대의 제자백가 중에서 '마음(心)'에 가장 주목을 한 사상가들이다. 맹자는 마음의 특정한 길인 '성(性)'을 극대화 키워서 자율적 도덕의 세계를 만들려고 했고, 장자는 마음의 통제되는 않는 변화무쌍한 '정(情)'에 주목해 외적인 개입의 시도를 차단하려고 했다. 저자는 두 거장을 크로스-리딩의 방식으로 읽어 나가면서, 그들의 고유한 성장론을 거울처럼 서로 비춘다. <사람의무늬·1만5000원>

▲책 잘 만드는 제책=제책의 역사부터 방식 및 기술까지 종합적으로 다룬 책.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제책 용어는 물론, 작업 과정을 일러스트와 함께 친절하게 설명 해주며, 제책에 관해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한 입문서 역할을 한다. 쉽고 재미있게 책을 만드는 강의하고도 손쉬운 유명한 저자의 장점을 살려 부록으로 '내 손으로 책 만들기' 코너를 마련, 그림과 설명을 보고 따라하면 금세 다이아리 한 권을 직접 만들어볼 수 있다. <두성북스·2만8000원>

어린이 책

▲교과서 속 세계 명작(1~10)=독후감 쓰기를 어려워하는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을 위한 세계 명작 시리즈. 아이들이 책을 읽고 다양한 독후 활동을 경험한 후 스스로 독후감을 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안데르센 동화집', '알프스 소녀 하이디', '어린왕자' 등 10권으로 구성돼 있다. <고래가 숨쉬는 도서관·각 권 9500원>



의 대표 저자인 유타 리히터의 작품. 죄책감, 정직, 잘못에 대한 책임감 등 아이들의 심리를 그려낸 성장 동화다. 장난을 치다가

강둑에 불을 낸 세 아이들은 마을 주민들의 책상으로 용감하게 불을 끄는 '작은 영웅'으로 유명해지고, 이 일로 아이들은 죄책감에 시달린다. <꿈터·1만1000원>

▲부끄럼쟁이 아나, 생각쟁이야! =소심한 아이들, 내성적인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그림책. 부끄러움을 타는 것은 좋지 않으나 "바꿔라, 고쳐라, 숨겨라!"고만 말하지 않고, 부끄럼 타는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 줄 수 있는 특별한 점을 부각시켜 준

다. <웅진주니어·1만1000원>

▲별난 소녀 엘리자 평=늘 말뚱을 부려 애뵈와 새엄마에게 혼나기 일쑤인 엘리자 이야기.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소외당하는 엘리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가족들을 위해 기발한 발명품을 잘도 만들어 낸다. 엘리자의 기막히고도 웃긴 에피소드는 어린이 독자들에게 상상의 세계를 마음껏 즐기도록 해주고 매일 실수하는 어린이들에게는 용기를 줄 것이다. <한솔수북·8000원>

신축원룸매매 (전대2분)

전대상대2분
(미래로 아파트 용봉지구 코너)

신축 4층 룰21개
(1층 상가2칸, 4층 고급주택)

엘리베이터 완비

전면 대리석, 벽돌시공, 정남향

월수익 880만(1년 1억5000만)
매가 12억(보1억 5000만)

수익률 12% 11억5천

②전대정문, 후문1분(신축4층21개)★
1층 정문, 4층 고급주택 월수익 450만 매가 8억7천(보전, 용1억2천)

③나주 이창동 원룸★
룸 18개 월 550만 매가 4억3천(용1억2) 수익률 13%

★쌍촌역 오피스텔 매매(일룸형, 투룸형은전역2분)★
일룸형(10평) 3천3백(보증금 200, 월27, 용1000)
• 일룸형(11평) 매가 3천4백(보증금 200, 월 27, 용1000)
★2세대입사★총매가16천5백(보증금2000만) 실투자 4500만 (월수익 54만원) 수익률15%

(주)대신 ☎010-6670-9800, 062)952-5584

수완지구
상가매매3층

수완지구3층(85평)
매가13억5천

모아엘가 APT입구
5000세대

최고위층 노후보장
(학원, 사무실, 투자적합)
(보3천 월190만 용2억5천)
수익률 13%연 2400만원

전용을 높음

침단지구
상가매매2층

침단지구2층(62평)
매가1억7천

오션스과 임대
보증금2천 월90만
사무실 시설 완비
(주인직접 사용)

금당공인중개사

저하는 매매·교환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감정가이하

- 계림동 4차선도로점 상업지 571㎡(173)공사지가 7억
- 은행 5억 감정 9억 5천선 매도 6억 2천
- 월산동 2층주택 농성초등학교 부근 대지 196㎡(59) 건평 162㎡(49) 큰 아파트와 교환도 가능 1억 5천
- 광주은행점부근 대단지 대로변 649㎡(210)건물 522㎡(158)공사지가 11억 6천 매도 11억
- 계림동 대지 542㎡(164) 건물 398㎡(1200) 18억 2천

투자, 매도, 교환

- 쌍촌역부근 고신원 대지 272㎡(87) 건물 493㎡(149) 보증금 3천에 월 600만원 매도 5억 2천
- 치평중학교부근 대지 386㎡(117) 건평 603㎡(183) 원룸과 투룸 19개 전세 1억 2천에 월 600천 수익 5억2천
- 담양군 대면면 관리지역 8553㎡(2587)광장창고용적합 대출 1억 6천 매도 2억 2천
- 무인벨 적한 부지 나주시 송월동 상업지 1666㎡(504) 대출 13억원 매도 대출인수하고 3천만원
- 쌍촌동 5.18공원근대단지 대지 198㎡(60) 건물 453㎡(1371) 층은 가파와 인접 원룸 15개 5억 6천
- 농성동 소밭도로점 대지 206㎡(62)공사D에 매도 8500
- 보성특량면 산 68430㎡(20700)교환가능 1억 3백
- 남구 사동 사직공원부근 10월 준공예정인 주택 85㎡
- 은행 1억 5천선 상할여건중을 2억 3천
- 남구 사동 신축2층주택 대지 136㎡(41) 건평 132㎡ 임대 1억 4천 매도 4천 만원
- 나주시 산포면 별장부지 79㎡(234) 매도 1억원

임대

- 쌍촌동 운전역부근 원룸중대지 1층 234㎡(71)오락실 호프집 대형샤워 등 직할 보증금 5천에 월 230만원예정

문의 222-4994, 010-2632-5659
쌍촌동 (구) 등기소 자리, 가도 생활주택 전사전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상가/건물

- 화정동 교원공제부근 1층상가 225㎡ 매 12억(보1.3억, 월600만 유영프렌차이즈 입점)
- 북구 신용동 유치원 건물 매매 23억
- 광산구 신창동 4층건물 매매 27억(보4.1억 월1,240만)
- 서구 풍림동 대로변 3층건물 매 10억(보5천,월520만포함)
- 서구 차평동 5층건물 매매 40억 (보4억 월2,000만)
- 광산구 수완지구 상가건물 매매 110억

대지/전답

- 북구 용두동 1층주거지역 답 1,990㎡ 매매 6억 6천
- 서구 쌍촌동 대로변 주거지역 대지 760㎡ 매매 16억
- 남구 주월동 대지 2,290㎡ 매매54억(병원취적)
- 북구 용두동 생산녹지 답 5,000㎡ 매매 12억(참고적합)
- 북구 용두동 생산녹지 답 7,900㎡ 매매 29억(4거리코너)
- 광산구 신창동 생산녹지 답 2,000㎡ 매매 6억5천
- 광산구 대신동 계획관리지역 29,800㎡ 매매39억
- 서구 미륵동 생산녹지 답 5,400㎡ 매매 20억
- 담양군 월산면 잡종지 29,800㎡ 매매 16억
- 세하동 창고 1,590㎡(건234㎡) 매매 7.2억
- 벽진동 창고 730㎡ 임대 보 5천 월 450만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형

상무지구 우리병원옆 ~세정아울렛 사이
☎ 010-5536-0382 062) 373-0382

저렴한 고급 별장

정남진 별장은?

접근성, 주변 환경, 현세의 경관이
어울린 고급 수입 목재를 활용한
건축물로 남해안 최고의 별장!

광주에서 50분 거리에 소재한
정남진 별장은 위의 조건을 완벽히 갖춘 곳!

토지 4,900㎡
건물 245㎡
매가 협의

- 정남진 장흥, 특목량 해변가 환상적인 드라이브코스 선착장과 해수욕장, 바다뷰시, 리조트 등 최고의 워라카실과 어울린 명소에
- 캐나다산 수입 목재 건축물(100%)에 수입 철호 등 최고급 자재 및 완벽한 단열, 방음, 방습 및 내부공기 자동 배출 방식의 승수는 별장.
- 완벽한 보안시스템 구축.
- 정남진 별장은 전원주택이 아닙니다.

전화상담 사절.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 내방 바랍니다.

행운(구.대창)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송 창 석
011-642-7777

금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500만원정도

토지 가격 만도
7억5천만원정도

매매가격
8억8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